

부모의 학습지원이 아동의 학업수행력에 미치는 영향: 학습태도 및 학업스트레스의 조절된 매개효과*

임정하¹⁾ 최은경²⁾

요약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습지원이 아동의 학업수행력에 미치는 영향력의 경로에서 학습태도와 학업스트레스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한국아동패널 13차 자료에서 초등학교 6학년 아동 591명과 그 부모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PROCESS Macro의 모형 4와 8을 사용하여 조절된 매개 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학습지원은 아동의 학업수행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학습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부모의 학습지원이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스트레스의 조건부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학습지원이 학업수행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스트레스의 조건부직접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학습지원이 학업수행력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이 학업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부모 학습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및 가정 내 학습지원이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공적 지원체계와 연계된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학업수행력, 부모 학습지원, 학습태도, 학업스트레스, 초등학교

I. 서론

초등학교 고학년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환하는 시기이다. 이때 중요한 과업 중 하나는 학업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근면성을 발달시키고, 책임감을 함양하는 것이다.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에 접어들면서 이전 학년보다 교과 수준이 높아지고, 학업에

* 본 논문은 제13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2022. 9. 23)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1)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jhlim@korea.ac.kr

2) 고려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과 아동학 전공·지속가능생활시스템융합전공 박사과정 수료,

j97cekj@korea.ac.kr

대한 부담이 가중됨으로 이때 학업에 대한 올바른 습관과 태도를 갖추지 못한 경우 학업에 흥미를 잃거나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부모들은 이 시기 자녀의 학업 수행력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아동의 학업수행에 대한 성공적인 경험은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에 도움을 주며(장영은·성미영, 2017),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송홍준, 2018). 학업수행력은 학교적응의 중요한 요인으로도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학업수행력이 부족한 경우 전반적으로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데(김은설, 2018), 이는 정서적 위축과 같은 내재화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기초학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 중·고등학교 시기의 학습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Sarican, 2021), 학업수행력을 지원할 수 있는 직간접적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학업수행력이란 아동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의 영역에서 인지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취도를 의미한다(정연아·유준호, 2019). 이는 아동이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결과에 초점이 맞춰진 개념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학업수행력과 관련된 요인으로 아동 개인의 특성, 가정환경, 학교환경 등을 다루었다. 아동의 개인 특성 요인에는 집행기능(최혜선, 2021), 자기조절학습능력(마서민·이정화·손사결 외, 2019; Ergen & Kanadli, 2017), 학습태도(진경애·신태수·김성경 외, 2016), 학업스트레스(김혜원·장운옥, 2016; Pascoe, Hetrick, & Parker, 2020), 독서 정도(김양분·김난옥, 2015) 등이 포함되었다. 가정환경 요인으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연보라·김경근·장희원, 2013; Vadivel, Alam, Nikpoo et al, 2023), 부모 양육태도(전은옥, 2021; Gurdal, Lansford, & Sorbring, 2016), 부모의 학습참여(신지연·권순구·봉미미, 2016; Boonk, Gijsselaers, Ritzen et al, 2018; Porumbu & Necşoi, 2013), 부모의 성취압력(정영미, 2021; Johnson & Descartes, 2017), 부모-자녀 상호작용(최혜선, 2021)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학교환경 요인으로는 교사지원 및 수업분위기(박현린·김누리, 2015),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이운경·김민주, 2019) 등이 연구되었다. 이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학업수행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학업수행력과 관련된 개인 내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이 서로 어떤 영향을 주며, 어떤 경로를 통해 학업수행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녀가 학령기에 접어들면서부터 부모는 자녀의 학업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자녀의 학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공부를 시키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녀의 학습에 관여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최근 보다 어린 연령대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지원이 높아지고 있다. 부모들은 초등학교 시기의 자녀들의 학습을 관리하고 지

원한다. 부모의 학습지원은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교육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숙제를 도와주거나 학습 환경 및 자료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며 교육적 동기 유발을 위한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의 교육적 성취를 돕는 행동을 포함한다(Hoover-Dempsey, Green, & Whitaker, 2010).

부모의 학습지원과 자녀의 학업성취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아동에게 교육적 분위기를 제공하며, 학업에 관한 상호작용을 많이 할수록 아동의 학업수행력이 높았다(신혜숙·민병철, 2017). 부모의 학업 지원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에 대한 동기저하가 감소하고,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oonk, Gijsselaers, Ritzen et al, 2018). 또한, 부모가 자녀의 학업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사교육이 아동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신혜숙·민병철, 2017). 이는 사교육에 관해서도 부모가 단순히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자녀의 학업에 대한 관심과 행동적 지원 및 참여가 뒷따라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초등학교 시기 기초미달 수준의 학업성취를 보이는 학생의 부모들은 기초 이상 수준의 학업성취를 보이는 학생의 부모들에 비해 학업적 지원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경호·권희경·송승원, 2021). 따라서 부모의 학습지원은 아동의 학업수행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부모 학습지원이 학업수행력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가정이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보고된 바 있다(이선정, 2019; Booknk, Gijsselaers, Ritzen et al, 2018; Kim, 2022). 이러한 일관되지 않은 결과는 부모 학습지원과 학업수행력의 관계를 매개하거나 조절하는 다른 변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부모의 학습지원은 아동의 학업수행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아동 개인의 특성을 매개로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도 찾아볼 수 있다. Zimmerman(2000)은 아동이 부모의 지원을 자신의 학업 자원으로 잘 활용하고,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관리할수록 학습 능력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태도를 갖춘 학습자는 적극적으로 학업수행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교실환경 및 교사, 또래 자원을 활용하여 학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찾아나간다고 보았다. 문정선과 문경숙의 연구(2018)에서도 부모의 학습참여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때 자기조절학습 능력이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외적 요인인 부모의 학습참여가 자녀의 개인 내적 특성인 자기조절학습 능력을 높여 자녀 스스로 학업성취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게 함으로써 학업성취도 향상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한 결과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습지원과 아동의 학업수행력 간의 관계를 매개

하는 아동의 개인적 특성 요인으로 학습태도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학습태도는 개인의 학습 경험을 통해 내면화되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학습과 관련된 행동 양식이다(Ayalew, 2011; Lunn, 1969).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학습자는 자신의 학업 관련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고 학업 관련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아동의 경우, 학습태도는 일차적으로 부모의 학습에 대한 양육방식에 영향을 받게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학습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상황에서 유발되는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며, 일상생활에서 학습에 대한 관심을 가질수록 자녀가 바람직한 학습태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김근희·김영희, 2020). 또한, 부모가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지원하는 경우 자녀의 자기조절학습 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보운, 2021; 홍예지·이순형·이수현 외, 2015). 부모는 단순히 자녀의 학업 성적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자녀 스스로의 잠재력을 개발하도록 격려하고, 그들의 수준에 맞는 학습지원을 할 때, 자녀는 능동적인 학습태도를 갖출 수 있다(김춘경·이수연·최용용 외, 2022). 나아가, 이러한 능동적인 학습태도는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이 선행연구들(장영은·성미영, 2017; Richardson, Abraham, & Bond, 2012)을 통해 보고되었다. 따라서, 학습에 대한 부모의 지원과 개입이 자녀가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학습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녀의 능동적인 학습태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의 학습지원이 학업 관련 요인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보고하고 있지만, 학습자 개인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부모의 학습지원이 학업수행력에 미치는 효과는 모든 개인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두 변인의 관계를 조절하는 다른 변인이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학업에 대한 정서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학업스트레스가 부모의 학습지원과 학업수행력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즉, 부모의 학습지원과 학업수행력의 관계에서 학업스트레스에 의한 학습태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학업스트레스는 학교 공부나 성적 등 학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내외적 자극으로 인해 아동이 받게 되는 긴장이나 초조함, 걱정과 같은 심리적 부담 또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의미한다(오미향·천성문, 1994). 과거에는 학업스트레스가 중·고등학생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과열되는 교육열로 인해 초등학생들도 학업스트레스를 상당히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정은·김은하, 2019). 학업스트레스는 기본적으로 학업 수행을 저해할 뿐 아니라 심한 경우, 우울 증상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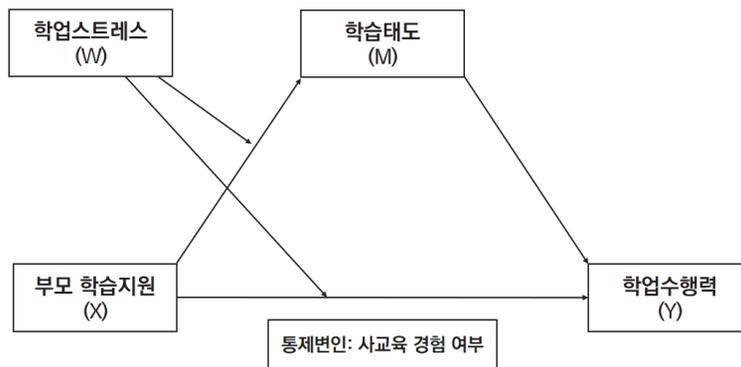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정영미, 2021).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학생들의 신체활동 감소, 온라인 학습 증가, 가족의 압박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학업스트레스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스트레스는 지각하는 수준에 따라 긍정적 자극으로 작용하여 학업이나 일의 동기를 높여 학업수행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정·이선정·신효식, 2019). 또한, 적정 수준의 학업스트레스는 학업에 대한 부모의 가치와 관여를 수용하고 학업 행동을 불러일으켜 학업적 성공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강금주, 2021). 반면, 학업스트레스는 개인의 학업효능감, 학업동기를 저해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기도 한다(김혜원·장윤옥, 2016). 학습에 대한 부모 및 교사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학습에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여 희망, 낙관성 등 긍정적 심리 경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강금주, 2021). 이처럼 학업스트레스는 학생의 학업과 관련된 변인에 적응적 또는 부적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학업스트레스 수준은 부모의 학습지원과 학업수행력의 관계, 부모의 학습지원이 학습태도를 매개하여 학업수행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조절분석과 매개분석을 통합한 조건부과정분석(conditional process analysis)이 관심을 받고 있다. 조건부과정분석은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영향을 전달하는 메커니즘의 조건부 성격과 이러한 조건부효과에 관한 검증을 이해하고 서술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이형권, 2020). 즉, 조절효과와 매개효과를 혼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 혹은 매개된 조절효과 모형을 통해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의 초점은 조건부간접효과와 조건부직접효과에 대한 추론검정이다. 조건부간접효과는 간접효과($X \rightarrow M \rightarrow Y$)가 조절변수의 값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고 조건부직접효과는 직접효과($X \rightarrow Y$)가 조절변수에 조건적(conditional)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 학습지원과 학업수행력의 관계에서 학습태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부모가 학습지원을 많이 할수록 학습태도가 좋아지고 학업수행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매개효과는 개인이 지니고 있는 학업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 학습지원과 학업수행력의 관계에서 학업스트레스에 의한 학습태도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아동의 학습에 대한 부모의 적절한 개입과 지원은 아동이 바람직한 학습태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학업수행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학업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부모의 학습지원이 학습태도, 학업수행력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13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학업수행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

중 부모 학습지원, 아동의 학습태도 및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수행력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아동의 사교육 경험과 학업수행력 간 관련성에 대해 보고한 연구들(박명희, 2019; 안영미·정익중, 2020; Ömeroğullar, Guill, & Köller, 2020)을 고려해 사교육 경험이 학업수행력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된 모형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부모의 학습지원, 아동의 학습태도, 학업스트레스 및 학업수행력은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부모의 학습지원과 학업수행력의 관계에서 학습태도의 매개효과가 유의한가?
연구문제 3. 부모의 학습지원과 학업수행력의 관계에서 학업스트레스에 의한 학습태도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한가?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13차(2020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 조사는 2008년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13차 자료는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 해당한다. 한국아동패널 2,150가구 중 13차 조사에 참여한 패널가구(보호자 응답기준)는 1,397가구이며, 여기에는 아동 1,359명, 어머니 1,380명,

아버지 1,352명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주요 연구변인인 부모의 학습지원, 학습태도, 학업스트레스, 학업수행력 자료가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초등학교 6학년생 59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남학생 294명(49.7%), 여학생 297명(50.3%)이었다. 부모의 평균연령은 아버지 45.68세($SD=3.86$), 어머니 43.13세($SD=3.72$)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교 졸업(부: 37.1%, 모: 35.2%)이 가장 많았고,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종사자(21.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7.3%),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16.2%) 순으로 많았고,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주부(40.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2.2%), 사무 종사자(14.7%) 순으로 많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500만 원대(20.8%), 400만 원대(18.4%), 600만 원대(12.9%) 순으로 많았다.

2. 측정도구

가. 부모의 학습지원

부모의 학습지원을 측정하기 위해서 Manz, Fantuzzo와 Power(2004)가 개발한 학습에 대한 가족참여(The Family Involvement Questionnaire, FIQ) 원문항을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한 후 한국 초등학생 상황에 맞추어 문항 수와 내용을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보고식이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드물다(1점)'에서부터 '항상 그렇다(4점)'까지 4점 Likert식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있다. 예시 문항으로 '자녀가 학교에서 공부한 것을 살펴본다.', '자녀를 위해 집에 학습 자료를 구비해둔다.' 등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의 학습에 적절하게 관여하고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하며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α 는 .78이었다.

나. 학습태도

학습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한국교육종단연구(KELS) 2013(II) (김양분·남궁지영·김정민 외, 2014)의 학습자 특성 조사에서 선택한 행동조절전략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의 자기보고식이다. 총 12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Likert식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있다. 예시 문항은 '교과목 공부를 위해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잘 활용한다.', '집중할 수 있는 장소에서 공부한다.' 등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행동적 측면에서의 학습태도가 적극

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α 는 .83이었다.

다. 학업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초4패널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 자기보고식이다. 총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그런적 없다(1점), 거의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자주 그렇다(4점), 항상 그렇다(5점)’로 5점 Likert 식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있다. 예시 문항은 ‘학교성적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등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 공부나 성적 등의 학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내외적 자극으로 인해 아동이 받게 되는 긴장이나 초조함, 걱정과 같은 심리적 부담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α 는 .79였다.

라. 학업수행력

학업수행력을 측정하기 위해 이은혜·김명순·전혜정 외(2008)가 개발한 척도를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아동의 학년 수준에 맞게 수정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초등학생의 담임교사가 보고하는 방식이다. 총 17문항(국어 3문항, 영어 1문항, 수학 6문항, 과학 1문항, 사회 2문항, 예체능 3문항, 전반 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하위 20% 이내(1점)’에서부터 ‘상위 20% 이내(5점)’까지 5점 Likert식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해당 교과목에서 보이는 상대적 성취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총점이 높을수록 학업수행력이 우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α 는 .98이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습지원이 아동의 학업수행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습태도의 매개효과와 학업스트레스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5.0과 PROCESS Macro(version 4.1)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부모의 학습지원, 아동의 학습태도, 학업스트레스, 학업수행력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이들 연구변인에는 결측치가 없었다. 둘째, 부모의 학습지원, 아동의 학습태도, 학업스트레스, 학업수행력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

째, 부모의 학습지원과 학업수행력의 관계에서 아동의 학습태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4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매개효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t 검증을 통해 사교육 경험 여부에 따라 아동의 학업수행력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사교육 경험 여부를 통제된 후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부모 학습지원과 아동의 학업수행력의 관계에서 학습태도 및 학업스트레스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model 8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Johnson-Neyman 방법을 적용하여 조절변수 전체 영역 중 X 가 Y 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영역과 유의하지 않은 영역을 확인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부모의 학습지원과 아동의 학습태도, 학업스트레스 및 학업수행력의 관계

먼저, 연구변인들의 평균을 살펴보면 부모 학습지원은 2.43($SD=.47$), 아동의 학습태도는 2.76($SD=.45$), 학업스트레스는 2.21($SD=.91$), 학업수행력은 4.21($SD=.79$)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된 변인들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표 1〉 참조), 아동의 학업수행력은 부모의 학습지원($r=.16, p<.01$) 및 아동의 학습태도($r=.21, p<.01$)와 정적 상관이 있었고, 학업스트레스와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r=-.16, p<.01$). 즉, 부모가 아동의 학습에 참여를 많이 할수록, 아동의 학습태도가 좋을수록 학업수행력이 높았다. 반면,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수행력이 낮게 나타났다.

〈표 1〉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N = 591$)

	부모 학습지원	학습태도	학업스트레스	학업수행력
부모 학습지원	-	.20**	-.15**	.16**
학습태도		-	-.22**	.21**
학업스트레스			-	-.16**
학업수행력				-
평균	2.43	2.76	2.21	4.21
표준편차	.47	.45	.91	.79

주. 부모 학습지원과 아동의 학습태도는 4점 척도,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수행력은 5점 척도로 평가함.

** $p<.01$.

2. 부모의 학습지원과 학업수행력의 관계에서 학습태도의 매개효과

매개효과 분석에 앞서 사교육 경험 여부에 따라 아동의 학업수행력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5.39, p<.001$). 사교육을 받은 집단의 학업수행력($M=4.28, SD=.73$)이 사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M=3.81, SD=.99$)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따라서, 아동의 사교육 경험 여부를 가변수화하여 모형에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이 때,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1로, 없는 경우는 0으로 코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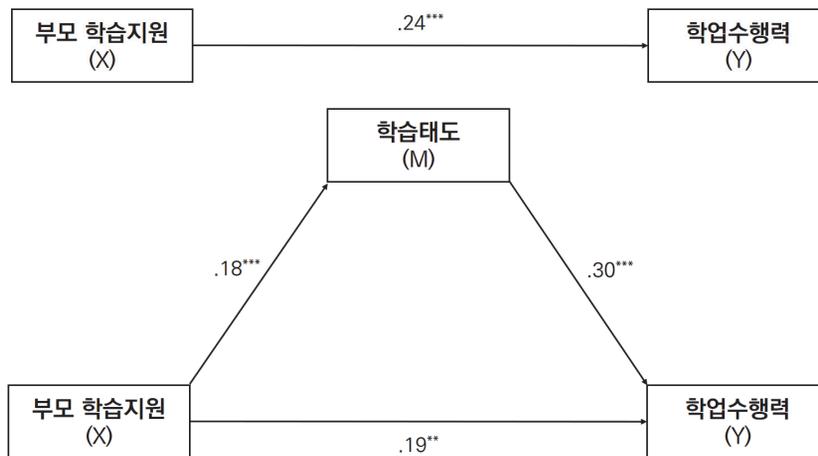
아동의 학습태도가 부모의 학습지원과 학업수행력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확인한 결과는 <표 2>, [그림 2]와 같다. 1단계에서 부모 학습지원이 학업수행력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였고($B=.24, p<.001$), 이는 부모의 학습지원이 많을수록 아동의 학업수행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단계에서 부모 학습지원은 학습태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18, p<.001$). 3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부모 학습지원을 통제하였을 때 학습태도가 학업수행력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했고($B=.30, p<.001$), 부모 학습지원이 학업수행력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B=.19, p<.01$), 학습태도는 부모 학습지원과 학업수행력의 관계를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부모의 학습지원과 아동의 학업수행력 간의 관계에서 학습태도의 매개효과 검증
($N = 591$)

	종속변인	독립변인	<i>B</i>	<i>se</i>	<i>t</i>	95% CI		<i>F</i>	adj <i>R</i> ²
						LL	UL		
1단계	학업수행력	사교육 경험	.37	.11	3.78***	.153	.578	13.30***	.04
		부모 학습지원	.24	.07	3.55***	.108	.376		
2단계	학습태도	사교육 경험	.17	.06	2.85**	.055	.298	16.55***	.06
		부모 학습지원	.18	.04	4.70***	.106	.259		
3단계	학업수행력	사교육 경험	.31	.11	2.91**	.102	.524	15.06***	.07
		부모 학습지원	.19	.07	2.73**	.052	.321		
		학습태도	.30	.07	4.22***	.161	.440		

주. CI-Confidence Interval; LL-Lower Limit, UL-Upper Limit

** $p<.01$, *** $p<.001$



[그림 2] 부모 학습지원과 학업수행력의 관계에서 학습태도의 매개효과

학습태도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고, 95% 신뢰구간을 적용하였다(〈표 3〉 참조). 이때 효과 추정치에 대한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Preacher, Rucker, & Hayes, 2007). 그 결과 간접효과 계수는 .055이며, 하한값 .020, 상한값 .102로 신뢰 구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녀의 학업을 잘 지원할수록 자녀가 바람직한 학습태도를 보이고, 이는 다시 학업수행력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 부모의 학습지원과 학업수행력 간의 관계에서 학업태도의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 (N = 591)

	Effect	BootSE	BootLLCI	BootULCI
총효과	.242	.068	.108	.376
직접효과	.187	.068	.052	.321
간접효과	.055	.021	.020	.102

3. 부모의 학습지원과 학업수행력의 관계에서 학업스트레스에 의해 조절된 학습태도의 매개효과

조건부과정분석은 조절분석과 매개분석을 통합한 분석기법으로 조건부직접효과와 조건

부간접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 이에 부모 학습지원이 학업스트레스에 의해 조절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8을 활용하여 조건부과정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를 살펴보면, 먼저, 학습태도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모형에서 부모의 학습지원은 학습태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B=.28, p<.01$). 반면, 학업스트레스 및 부모 학습지원과 학업스트레스의 상호작용항은 학습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학업스트레스에 의한 부모 학습지원의 조건부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업수행력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모형을 살펴보면, 부모의 학습지원은 학업수행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학습태도는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27, p<.001$), 학업스트레스는 학업수행력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42, p<.01$). 부모 학습지원과 학업스트레스의 상호작용항은 학업수행력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14, p<.05$) 조건부직접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부모의 학습지원이 자녀의 학업수행력에 미치는 영향은 학업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학업스트레스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N = 591$)

종속 변인	경로	<i>B</i>	<i>se</i>	<i>t</i>	95% CI		<i>F</i>	adj <i>R</i> ²
					LL	UL		
학습 태도	사교육 경험	.18	.06	3.03**	.065	.303	15.61***	.10
	부모 학습지원	.28	.09	2.93**	.091	.459		
	학업스트레스	.03	.09	.31	-.154	.212		
	부모 학습지원×학업스트레스	-.05	.04	-1.42	-.129	.021		
학업 수행력	사교육 경험	.33	.11	3.05**	.116	.535	11.53***	.09
	부모 학습지원	-.14	.17	-.87	-.468	.181		
	학습태도	.27	.07	3.72***	.127	.410		
	학업스트레스	-.42	.16	-2.60**	-.744	-.104		
	부모 학습지원×학업스트레스	.14	.07	2.06*	.007	.269		

주. CI-Confidence Interval; LL-Lower Limit, UL-Upper Lim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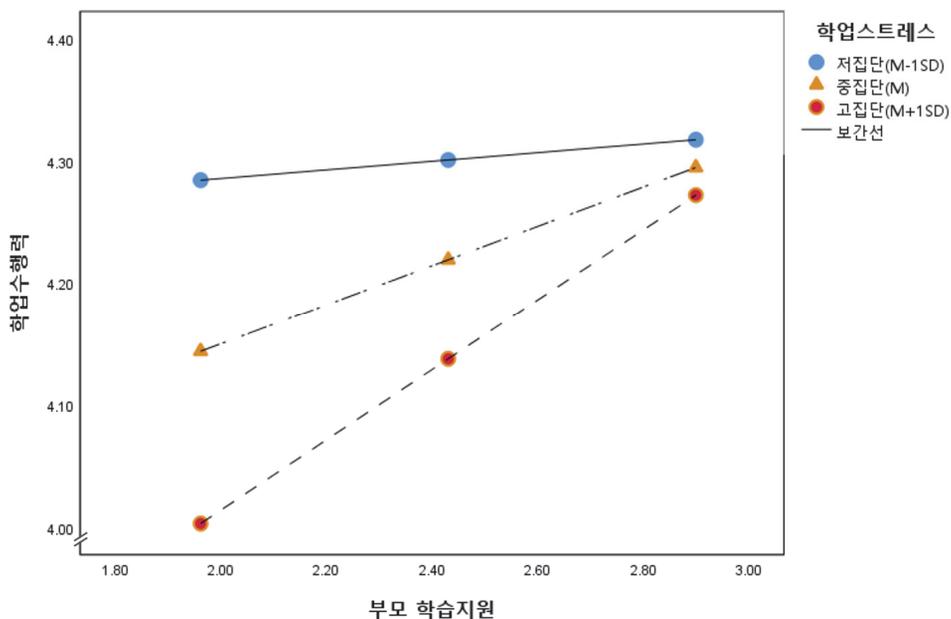
* $p<.05$, ** $p<.01$, *** $p<.001$

조건부직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학업스트레스 수준을 -1 표준편차, 평균, +1 표준편차로 나누어 각각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표 5> 참고). 분석 결과, 부모

학습지원이 학업수행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스트레스의 세 가지 수준 중 평균 이상에서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학업스트레스 값이 클수록 조건부직접효과는 컸다. 단, 이와 같은 조건부직접효과는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평균 이상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평균 미만인 경우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부모 학습지원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모든 아동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지각하는 학업스트레스가 평균 이상인 경우에만 유의미함을 의미한다. 즉, 학업스트레스 값이 평균인 경우나 평균보다 높은 경우, 부모 학습지원이 학업수행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증가하였다. 이는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평균이거나 평균보다 높을수록 부모 학습지원 증가에 따른 학업수행력 증가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에 학업스트레스의 조절효과를 시각화해 제시하였다.

(표 5) 학업스트레스 조건값에 따른 조건부직접효과의 부트스트래핑 검증

	조건값	<i>B</i>	<i>se</i>	<i>t</i>	<i>p</i>	LLCI	ULCI
학업스트레스	<i>M</i> -1SD	.035	.093	.377	.706	-.148	.218
	<i>M</i>	.161	.068	.354	.019	.027	.295
	<i>M</i> +1SD	.287	.090	.190	.002	.110	.463



[그림 3] 부모의 학습지원과 학업수행력의 관계에서 학업스트레스의 조절효과

추가적으로, 조절변수의 전 범위에 대하여 Johnson-Neyman 기법을 이용해 조절변수 값에 따른 유의성 영역을 확인한 결과, 부모의 학습지원이 학업수행력에 미치는 영향은 조절변수인 학업스트레스 값이 2.0400부터 5.0000까지의 영역에서 유의하였다. 척도에서 1 점은 학업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이고, 2점부터는 학업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임을 고려할 때, 학업스트레스를 받는 아동들의 경우 부모의 학습지원이 학업수행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는 학업스트레스가 클수록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이가 이루어지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학습지원이 아동의 학업수행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습태도의 매개효과와 학업스트레스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학업수행력은 부모의 학습지원, 학습태도, 학업스트레스 모두와 각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학습지원이 많을수록 학업수행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아동에게 교육적 분위기를 제공하고, 학업에 관한 상호작용을 많이 할수록 학업수행력이 높았다는 연구(신혜숙·민병철, 2017; Porumbu & Necşoi, 2013)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부모의 학업적 지원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자기효능감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높았다는 연구(서보운, 2021)와도 같은 맥락에 있다. 아동의 학습태도가 바람직할수록 학업수행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능동적인 학습태도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밝힌 연구들(장영은·성미영, 2017; 진경애·신태수·김성경 외, 2016; Richardson, Abraham, & Bond, 2012)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반면, 학업스트레스 수준은 낮을수록 학업수행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김혜원·장윤옥, 2016; Pascoe, Hetrick, & Parker, 2020)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둘째, 부모의 학습지원은 아동의 학업수행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아동의 학업 관련 특성인 학습태도를 매개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김영란과 김민정의 연구(2016)에서 자녀의 학습에 대한 지지적 분위기, 자녀의 학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평가한 가족기능이 자녀에게 보다 적절한 학습 습관을 길러주고, 이는 다시 자녀의 학업 성적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그 맥을 같이한다.

또한,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가 아동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학업성취를 높인다는 연구(정수정·최나야, 2018)와도 같은 맥락에 있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학습에 필요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것이 학업 상황에서 아동이 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능력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녀의 학업수행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자녀의 외적 변인인 부모의 학습지원이 자녀의 내적 변인에 영향을 미쳐 학업수행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 때 학습에 대한 부모의 개입이 능동적인 학습태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적절한 학습지원은 아동기 학습에 요구되는 바람직한, 능동적인 태도를 마련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부모는 학습 환경을 조성해 자녀가 부모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 자신의 자발적인 자세로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정수정·최나야, 2018). 부모의 학습지원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이는 오히려 자녀의 학습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례로, 부모가 자녀의 학습에 과도하게 관여하여 자녀가 주체가 되어야 할 학습을 부모가 떠맡는다면, 이는 자녀가 능동적 학습태도를 발달시키는 것을 방해하고 자녀의 학업수행력을 저해할 수 있다(김춘경·이수연·최용용 외, 2022). 따라서, 부모는 자녀가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적 자원을 제공해주고, 자녀 스스로 자신의 학습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학습지원의 적정 방식과 수준은 학습자인 자녀의 특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므로, 구체적인 지원의 내용과 수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부모의 학습지원이 아동의 학업수행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스트레스에 의한 조건부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조건부직접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부모 학습지원이 학습태도를 통해 학업수행력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력은 학업스트레스 수준과 관계없이 나타났으나, 부모 학습지원이 학업수행력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이 자녀의 학업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보다 학업수행력에 있어 바람직한 학습태도가 중요하며, 이러한 학습태도는 부모의 적절한 학습지원을 바탕으로 증진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특히 학습지원에서 바람직한 학습태도를 통해 학업수행력으로 가는 영향력의 경로가 학업스트레스와 같은 다른 특성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당히 안정적 경로임을 시사한다. 반면, 이러한 간접적 영향력 외에 부모 학습지원이 학업수행력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은 자녀의 학업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학업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아동들의 경우, 학습지원의 직접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부모의 학습지원 정도에 따라 학업수행력이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학업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

답한 아동들의 경우는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습지원이 학업수행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적정 수준의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에 대한 부모의 가치와 관여를 수용하고 학업 행동을 불러일으켜 학업적 성공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연구(강금주, 2021)와 그 맥을 같이한다. 이는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아동들의 경우, 학업수행력에 있어 부모의 학습지원이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아동들에 비해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와 동시에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부모의 학습지원이 낮은 아동들은 상대적으로 학업수행력에 있어 매우 취약한 조건에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 중재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부모의 가정기반 학습지원은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학습태도를 증진시킴으로써 학업수행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자원임을 알 수 있다. 학업수행력이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자녀의 학업스트레스 수준에 관계없이 부모의 학습지원은 바람직한 학습태도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높은 학업수행력과 직결되었다. 나아가 아동이 학업스트레스를 보고하는 경우, 부모의 가정기반 학습지원은 아동의 학업수행력에 직접적 영향을 더함으로써 특히 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부모의 가정기반 학습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부모의 가정기반 학습지원이 부족한 아동들이 학업수행력에 있어 보다 취약한 대상임을 인지하고 우선적인 학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의 13차년도 초등학교 6학년생의 자료만을 분석하였다. 부모의 학습지원은 자녀의 학교급별로도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학교급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학습지원의 특성과 수준에 대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인 아버지와 어머니 및 그 자녀들로 구성된 가정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최근 가족의 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다양한 유형의 가정 맥락을 고려하여 가정 내 학습지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횡단 자료를 이용하여 부모의 학습지원과 아동의 학업수행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부모 학습지원이 중·고등학교 시기의 학업수행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발달과 학업수행에 대한 부모 개입의 효과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업수행력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요인인 학습지원과 개인요인인 학습태도, 학업스트레스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학업수

행력은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며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변인들이 아동의 학업수행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이가 이루어지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학업수행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기제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업수행력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와 아동 개인 요인들의 영향을 종합해 매개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를 통해 복합적으로 살펴보았으며, 학업수행력과 관련된 개인 내적 특성 변인과 외부의 환경적 변인이 서로 어떤 영향을 주며, 어떤 경로를 통해 학업수행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자녀의 학습에 대한 부모 지원의 중요성과 원활한 학업수행에 취약한 조건을 일부 조명해 보았다.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부모가 아동의 학습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학업 수행에 효율적이고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부모뿐 아니라 교사, 교육현장관계자, 학계의 연구자들 모두에게 관심이 되어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습지원과 자녀의 학업수행력 간 연관성의 경로에서 자녀의 학습태도 및 학업스트레스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 조절된 매개모형을 중심으로 검증해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 및 논의를 토대로 아동의 학습지원 및 학업수행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학령기 아동이 학습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에는 부모가 이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을 적절히 지원해 주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부모가 자녀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가정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적 자원을 제공하는 학습지원은 자녀의 학습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는 다시 자녀의 학업수행력 향상으로 이어졌다. 이때 학습지원의 적정 방식이나 수준은 자녀의 특성에 따라서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환하는 시기로, 사춘기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사춘기 자녀에게 개입하는 방식은 초등학교 저학년과는 달라져야 한다. 예를 들어, 저학년 시기에는 자녀의 숙제를 직접 확인하고 도와주는 등 자녀의 학습태도 형성 및 학업수행력에 보다 직접적 지원을 제공했다면, 점차 고학년이 되어가는 시점에는 자녀가 과제나 학습을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부모는 간접적 지원과 모니터링 방식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녀의 발달단계와 성숙도를 반영한 부모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교육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부모 교육 이수 제도나 부모 인센티브 제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가정 내

부모의 학습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족센터, 전국학부모지원센터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기존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자녀의 특성 및 발달단계를 고려한 학습지원을 부모가 적절히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자녀를 위한 학습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은 부모가 이러한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부모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양육자들을 위한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차원에서 가족 단위의 복지 서비스와 부모 교육을 연계해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취약대상 부모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갖추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가정-학교-지역사회가 긴밀하게 연계된 아동의 학습지원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

둘째, 2020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교육부, 2021)에 의하면, 전년도보다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감소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교육부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한 결과(교육부 보도자료, 2022. 4. 13), 초·중·고등학생의 약 43%에서 코로나19 이후 학업스트레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아동의 학습결손과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게 되었고, 시·도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 왔다. 또한,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국가 교육책임제 실현을 위해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라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추진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2. 10. 11).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은 국가-교육청-학교가 협력하여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시도교육청은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이 장기적으로 보다 큰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우선적인 지원 대상자 선정에도 보다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에서 부모의 학습지원이 학업수행력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은 자녀의 학업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학업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부모의 학습지원이 학업수행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난 현상은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아동들에게 학습지원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부모의 학습지원이 낮은 아동들은 학업수행력에 있어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하고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보다 선제적으로 중재와 지원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에 아동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진단 평가를 실시할 때, 학업스트레스와 같은 학습에 대한 정서·심리적 측면을 함께 진단하여 학생별 상황·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가정 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에게 자녀의 기초학력 진단 정보와 함께 학습에 대한 정

서·심리 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및 학습지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학업에 대한 심리·정서가 취약하고 가정 내 지원이 부족한 아동을 선별하여 위(Wee) 클래스, 위(Wee) 센터, 교육청 단위로 설치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지역학습도움센터 등과 같은 공적 지원체계와의 연계를 통한 전문적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강금주(2021).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내사된 조절동기와 긍정심리자본의 관계에서 학업스트레스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8(7), 159-183.
- 교육부(2021).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 모든 학생의 코로나19 극복 지원.
- 교육부 보도자료(2022. 4. 13). 코로나19 학생정신건강 변화에 따른 지원 방안.
- 교육부 보도자료(2022. 10. 11). 「제1차 기초학력 종합계획(2023~2027)」 발표.
- 김근희·김영희(2020). 청소년의 성격특성과 부모의 학습관여가 자율적 학습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총*, 24(1), 111-123.
- 김양분·남궁지영·김정민·박경호·임현정·최보미·이영주·송승원·김난옥(2014). 한국교육종단연구(KELS)2013(II) 조사개요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 김양분·김난옥(2015).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및 학교변인 탐색. *교육학연구*, 53(3), 31-60.
- 김영란·김민정(2016). 가족의 기능적 변인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성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모형. *여성연구*, 90(1), 45-86.
- 김은설(2018).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연구. *발달지원연구*, 7(1), 19-34.
- 김은정·이선정·신효식(2019).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학습관여, 가족건강성 및 학업스트레스의 관계.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31(1), 59-75.
- 김춘경·이수연·최용용·강영배(2022). *청소년 상담*. 서울: 학지사.
- 김혜원·장윤옥(2016).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4(5), 99-117.
- 마서민·이정화·손사결·박병기(2019). 자기조절 학습과 학업성취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아동교육*, 28(3), 109-133.
- 문정선·문경숙(2018).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와 교사의 기대가 자기조절학습능력을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5), 191-215.
- 박경호·권희경·송승원(2021). 초등학교 시기 학업성취수준 기초 미달 여부에 따른 교육 경

- 협과 성장의 차이. 한국교육개발원 KEDI BRIEF, 17권.
- 박명희(2019). 아동의 학업성취 영향요인 간 구조적 관계: 부의 양육태도, 언어능력, 사교육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동교육*, 28(2), 113-130.
- 박현린·김누리(2015). 학교와 가정의 사회 심리적 환경 변인이 저성취 초등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아동교육*, 24(2), 39-52.
- 서보운(2021).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기 주도적 학습전략과 학습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 59-78.
- 송홍준(2018).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종단적 효과분석: 초등학교 6~중학교 2학년생을 중심으로.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8(2), 22-43.
- 신지연·권순구·봉미미(2016). 부모의 지원, 성취압력과 초등학생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학습동기 변인의 매개효과. *교육방법연구*, 28(3), 497-520.
- 신혜숙·민병철(2017). 가정배경, 부모 교육관여 및 학업성취도의 구조적 관계. *교육문화연구*, 23(6), 535-556.
- 안영미·정익중(2020). 초등학생의 사교육시간과 독서시간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학습습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22(2), 169-195.
- 연보라·김경근·장희원(2013).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학업지원, 양육방식, 사교육 참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교육학연구*, 19(3), 99-122.
- 오미향·천성문(1994).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요인 및 증상 분석과 그 감소를 위한 명상훈련의 효과. *인간이해*, 15, 63-95.
- 이선정(2019).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 학습관여와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학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4(2), 3-24.
- 이운경·김민주(2019).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부모,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유형: 정신건강, 학업스트레스, 학업동기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40(3), 105-121.
- 이은해·김명순·전혜정·이정림·이윤선·김주혜·조수영·정주희(2008). 삼성어린이집 포괄적 보육 서비스에 대한 종단적 효과 연구. 미발간.
- 이형권(2020). PROCESS macro를 이용한 조절된 매개효과분석. 신영사.
- 장영은·성미영(2017).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6학년 학업성취에 대한 4학년 학업성취의 예측: 5학년 자아존중감 및 학습행동조절의 순차적 매개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3(2), 21-37.
- 전은옥(2021). 부모의 양육태도가 초등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학습시간, 여가시간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1), 99-112.
- 정수정·최나야(2018).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부모자녀관계, 자아강도, 학교생활적응, 자기조절

- 학습능력,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 *인간발달연구*, 25(1), 121-145.
- 정연아·유준호(2019). 부모의 교육열 유형에 따른 아동의 자아 존중감, 행복감, 학업수행능력, 교사-아동관계의 차이에 관한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0), 1297-1317.
- 정영미(2021). 부모의 성취압력이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학업수행능력의 매개효과. *인문사회21*, 12(2), 2777-2789.
- 진경애·신태수·김성경·최영인(2016). 초등 국어, 수학, 영어,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정 의적·메타 인지적 변인 탐색. *교육과정평가연구*, 10(1), 227-254.
- 최정은·김은하(2019).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행동과 학업 스트레스의 관계: 학업 자아개념의 매개효과. *한국웰니스학회지*, 14(1), 323-334.
- 최혜선(2021). 부모-아동 상호작용이 아동의 학업수행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 *한국가정교육학회지*, 33(1), 81-99.
- 홍예지·이순형·이수현·조혜림(2015). 초기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 휴대전화 의존도 발달 궤적 및 자기조절학습 간의 관계: 성별의 차이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6(6), 165-188.
- Ayalew, T. (2011). Student Attitudes towards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in Afar Region (Doctoral dissertation, Addis Ababa University).
- Boonk, L., Gijsselaers, H. J., Ritzen, H., & Brand-Gruwel, S. (2018). A re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involvement indicators and academic achievement. *Educational Research Review*, 24, 10-30.
- Ergen, B., & Kanadli, S. (2017). The effect of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on academic achievement: A meta-analysis study. *Eurasi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7(69), 55-74.
- Gurdal, S., Lansford, J. E., & Sorbring, E. (2016). Parental perceptions of children's agency: Parental warmth, school achievement and adjustment.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6(8), 1203-1211.
- Hoover-Dempsey, K. V., Green, C. G., & Whitaker, M. W. (2010). Motivation and commitment to partnerships for families and schools. *Handbook of school-family partnerships*, 30-60.
- Johnson, E. J., & Descartes, C. H. (2017). Parental influence on academic achievement among the primary school students in Trinidad.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7(7), 1221-1227.
- Kim, S. (2022). Fifty years of parental involvement and achievement research: A second-order meta-analysis. *Educational Research Review*, 100463.

- Lunn, J. C. B. (1969). The development of scales to measure junior school children's attitude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39(1), 64-71.
- Manz, P. H., Fantuzzo, J. W., & Power, T. J. (2004).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family involvement among urban elementary student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2(6), 461-475.
- Ömeroğullar, M., Guill, K., & Köller, O. (2020). Effectiveness of private tutoring during secondary schooling in Germany: Do the duration of private tutoring and tutor qualification affect school achievement?. *Learning and Instruction*, 66, 1-23.
- Pascoe, M. C., Hetrick, S. E., & Parker, A. G. (2020). The impact of stress on students in secondary school and higher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Adolescence and Youth*, 25(1), 104-112.
- Porumbu, D., & Necşoi, D. V. (2013).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involvement/attitude and children's school achievements.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76, 706-710.
- Preacher, K. J., Rucker, D. D., & Hayes, A. F. (2007). Addr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e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2(1), 185-227.
- Richardson, M., Abraham, C., & Bond, R. (2012). Psychological correlates of university students' academic performance: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38(2), 353-387.
- Sarican, E. (2021). Are the learning style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related to their academic success? A study of mixed research method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and Educational Studies*, 8(4), 110-124.
- Vadivel, B., Alam, S., Nikipoo, I., & Ajanil, B. (2023). The Impact of Low Socioeconomic Background on a Child's Educational Achievements. *Education Research International*, 2023.
- Zimmerman, B. J. (2000). Attaining self-regulation: A social cognitive perspective. In *Handbook of self-regulation* (pp. 13-39). Academic press.

- 논문접수: 4월 4일 / 수정본 접수 5월 22일 / 게재 승인 6월 10일
- 교신저자: 최은경, 고려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과 아동학 전공·지속가능생활시스템융합전공 박사과정 수료, j97cekj@korea.ac.kr

Abstract

Child Academic Achievement in Relation to Parental Academic Involvement: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Learning Attitude and Academic Stress

JungHa Lim and EunKyung Choi

This study teste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learning attitude and academic stress on the link between parental academic involvement and child academic achievement. The participants were 591 elementary school students (6th graders) and their parents, retrieved from the 13th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PROCESS Macro models 4 and 8. Correlation analyses showed significant associations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and parental involvement and between child learning attitude and academic stress. The results of testing the moderated mediation model indicated that parental involvement was directly and indirectly linked to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via child learning attitudes. In addition, the conditional indirect effect of academic stress on the link between parental involvement and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was significant. In other words, children with greater academic stress demonstrated better academic achievement when they had greater parental involvement.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re discussed in terms of supporting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in general and, specifically, how to support children who need academic improvement.

Keywords: academic achievement, parental involvement, learning attitude, academic stress, elementary school